

'온라인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발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플랫폼법 제정 필요, 숙박업 74.0% · 온라인쇼핑몰 65.0% · 배달업 61.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업 및 숙박업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업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증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박업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263원, 숙박업 107만9,300원, 배달업 10만7,78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달업 입점업체가 생각하는 직접 배달가능 범위는 반경 3.1km로, 품목별로는 회·초밥 3.9km(최장 품목), 치킨·피자 3.1km, 한식 2.9km, 샐러드 2.0km(최단 품목) 등으로 조사되어, 일부 배달업의 기본 광고(노출) 반경(1.5km~3km)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플랫폼 입점 거래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업(7.5%), 배달업(5.3%), 온

라인쇼핑몰(5.1%) 순이었고,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업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업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업(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업(61.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

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만큼, 배달업에 비해, 숙박업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원간 상호 갑질 부당행위 예방과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부서별 맞춤형 상호존중 실천강령을 추진해 직장내 상호존중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 존중' 실천강령 추진

전개공, 상호존중·배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원간 상호 갑질 부당행위 예방과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부서별 맞춤형 상호존중 실천강령을 추진해 직장내 상호존중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서별 맞춤형 상호존중 실천강령'은 부서별 실무회의를 통하여 부서장과 실무자가 갑질 예방과 청렴 관련 내용 등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5가지를 정해 목록을 작성 및 서명하여 부서별로 부착해 추진한다.

또한, 직원들이 기관장에게 바라는

"업무 효율성 개선과 청렴문화 조성" 등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기관장 실천강령' 전달 메시지를 제작하여 기관장이 직접 서명 후 사장실에 게시하였다.

이외에, 전북개발공사 청렴감사실은 직원이 요청한 내용을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갑질 사전예방에 대한 솔선수범 의지 표명과 부서장과 실무자간 상호 실천하는 실천강령을 계기로 직장 내 갑질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 문화 만들어나 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신입행원 24명 사령장 수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신입행원 24명의 사령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수여식에는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전북은행의 새 임원이 된 신입 행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지난 6개월의 수습 근무를 마친 24명의 신입 행원들은 수습기간 동안 본점 각 부서 및 영업점 등에 배치돼 실질적인 현장 업무를 터득하며 은행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백종일 은행장은 "신입 행원 여러분께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멋진 은행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전북은행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농약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역량 키운다

농촌진흥청, 4일부터 이틀간 농약 독성시험법 분야 정보공유 공동연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사단법인 한국농약과학회, 농약독성연구회와 함께 농약 등록업체나 시험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서에서 '농약 독성시험법 분야 정보공유 공동연수'를 연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사람, 환경생물 독성분야에서 농약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한다. 이를 통해 농약 등록업체와 시험연구기관 담당자, 농약

전공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날에는 농약에 과다 노출됐을 때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급성 독성기준 설정 방법'과 '농약의 끝별 독성시험'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중 '인체 각막 모형(모델)을 이용한 안점막 자극 시험'과 '농약 끝별 독성 시험 방법(유충독성, 성충독성·섭식독성, 염산진류시험)' 등을 실습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연수가 국제 수준의 최신 농약 안전성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농약 업무 담당자와 학생들이 농약 독성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요종 과장은 "앞으로도 농약 독성시험법 분야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정기적으로 열어 농약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익산군산축협, 계통사료 5만톤 판매 달성탑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3일 익산군산축협이 농협 계통사료 5만톤 판매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계통사료 판매 달성탑은 농협 축산경제가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료사업 발전에 기여가 큰 우수축협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상하는 제도이며, 매 분기에 직전 1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익산군산축협 심재집 조합장은 "국제정세 불안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사료가격이 급등하여 어려운 축산 상황에서도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었기에 5만톤 달성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조합은 계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3일 익산군산축협이 농협 계통사료 5만톤 판매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통사료 공동구매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 실천 결의대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3일 청내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 환경 정착과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새만금청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반부패·청렴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 직원의 청렴 서약서 서명, 청정의 당부 말씀, 청렴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청렴 선언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권한과 책임 명확화, △공정한 직무수행, △청탁·알선·금품·향응·부당한 이익 금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3일 청내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 환경 정착과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의 투자유치 등으로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라면서, "이런 시점에서 열리는 청렴 결의대회는 새만금 사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한 결연한 의지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